# https://youtu.be/fPp3Qh-GRqs



 $Enrico\ Prampolini-Woman+Light+Environment$ 

미래주의당과 피우메 자유국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주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스템을 원하였다.

출처는 미래주의와 민주주의(Democrazia futurista)

현재의 전제주의적 질서 체계는 오류가 많으며 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리석고 때로는 범죄적이기까지하다. 그러므로 전제국 가는 반드시 사라저야하며 빠르게 폐지되어야할 대상이다,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 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국가는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정도로 힘든 시기에만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한다.

- Filippo Tommaso Marinetti - 영웅적 인민, 경찰의 폐지와 용기의 학교, 현재 미래주의 이론과 발명

## 1.조합주의 국가

각 분야의 능력의 맞는 영웅들(부르주아든 노동자든 병사든)의 조합으로 굴러가는 국가.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우리한텐 ㅈ도 관심없고 어느 것이 되든 의미없는데

영웅둘의 조합주의 국가인거 거부하면 니들 뒤짐.

### 2.경찰제 폐지와 교도소의 개혁

특히 정치경찰제 폐지로 민중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 국가가 개입 ㅈ도 하지말 것

## 3.결혼제 폐지, 자유연애 지지

아이를 원할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육 시스템으로 양육가능. 양육된 아이는 국가에서 사랑의 대한 무상 지원으로서 '자녀세금'을 받을 수 있음.

아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임!

## 4.관료주의적 분권화와 연공서열 폐지

분권화는 조합주의 국가의 필수적 조건이고 연공으로 청춘들의 혁명을 방해하면 안됨

5.영웅화(노동과 전쟁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남녀 안가리고 모두 보통선거제를 주기, 직장에서의 양성평등등

6. 징병제 폐지와 의용군제(모병제가 아님 의용군제임)

영웅화는 영웅적 경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징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7.헨리 조지식 토지개혁

토지가격의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등으로 돈버는건 '영웅적인 노동의 노력'이 아닌데 왜 니가 처먹음? 국가에 100% 과세하고 영웅적 노동으로 번 것만 정당한 노력의 값임. 지주 새끼도 마찬가지임.

## 8.반성직주의

종교는 구체제의 더럽고 역겨운 것이니 뒤저야하는게 마땅함. 멋진 교회는 불타는 교회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에 폭탄놀이 하는 것은 좋은거임

# 9.Opera nazionale Balilla를 지원

용기에 가득찬 학교와 예술로 가득찬 학교를 지원하는건 당연한 것

### 10.놀고먹는 새긴 뒤저라.

사회에 기여한 만큼 받아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먹고자는건 안된다. 니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그럴수 있음. 그러면 예술 ㄱ

### 11.정당과 의회없는 직접선거로 뽑혀지는 기술 관료정

30세 미만의 20명의 청년으로 이루어지는 '청춘 위원회'를 꾸려야함. 이는 직접선거로 꾸려야하는데 만약 이번 청춘 위원회가 늙은이 위원회가 된다면 당장 그 위원회를 부셔버리고 다시 직접선거로 청춘 위원회를 꾸려야함.

### 12.인종주의 철폐, 민족주의랑 인종주의는 다른거임.

청춘의 열정으로 예술하고 노동하고 전쟁에 참여하면 그게 이탈리아인이지.(여담이지만 이걸로 무솔리니랑 싸웠는데 무솔리니가 반유대주의, 인종법 만들자 미 리네티는 자기 잡지에다가 인종주의법은 쩐다새기나 할만한 반동적 법이라고 깠음)

### Luigi Russolo - Dynamism of a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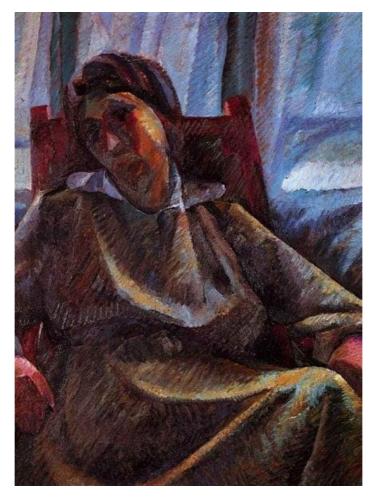
등이 있었다. 실제로도 미래주의당은 19년에 이미 무솔리니가 지주, 가톨릭인들과 손잡으려는 것이 보이자 '이 개같은 반동새기 뒤저라, 우린 카르스트로 진격하고 있으며 반동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다, 투표선거하는 쩐따 무솔리니새기야했다가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이라는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잡자 다시 무솔리니에게 돌아오기도 함.

하지만 무솔리니는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했기에 미래주의자는 물론 기존 보수층과도 연대해야했고 거기서 미래주의적 이상을 싸그리 씹어먹고 껍데기만 남겨 놓은 채(대표적으로 조합주의. 미래주의와 소렐주의자와 초기 파시스트들은 국가 관제하의 단일 노조란 개념을 거부했음) 예술도 선전 예술만 허용하고 미래주 의적 아방가르드 예술을 거부했음.

여기서 민족 조합주의자였던 암브시오는 이탈리아 떠났고 단눈치오는 그람시랑 손잡고 파시스트 새기 죽여버릴꺼야 하기도 했는데 마리네티만이 무솔리니한 테 알랑방구 뀌면서 미래주의 수호할려고 했음 마리네티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었기에 남았는데

마리네티는 무솔리니가 원하는 선전 예술을 하면서도 미래주의의 아방가르드적 예술적 사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둘을 조화 시키려했지만 (좋은 작품이 몇개나오긴 했지만) 항상 전의 예술보다 덜 급진적이고 덜 아방가르드한 작품만이 나왔음. 그래도 제 2차 에티전쟁, 2차대전등에 참가하며 무솔리니에게 '미래주의는 애국적 사조에요 ㅎㅎ,'하면서 미래주의를 지킴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영감을 다시 얻으려 했는데 독소전쟁에서 동부전선에 참가했던 마리네티가 소련의 모습에 영감을 크게 받음. 소련한테서 영감받은 마리네티는 늙고 병든 '반동'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살로 공화국이 선포될 때 그는 현재 이탈리아가 초기 파시즘의 이상 (즉 정치권력과 협력하기 이전)으로 돌아갈꺼라고 믿고 거기서 활동했는데 1944년 심장마비로 사망함.

당시 살로 공화국은 베르나 선언문이라는 기업의 사회화(국유화가 아님)를 주장하던 선언문을 뿌릴려고 했었는데 우리 대머리 두체 무솔리니는 이를 끝까지 거부했고 '파시스트 노동자'가 기업의 사회화를 요구하라 '반 파시스트 무솔리니 개새갸'라면서 총파업으로 투쟁했더니 무솔리니는 경찰과 군대로 잡아다가 히틀러한데 넘겨버렸다는 엔딩.(참고로 히틀러는 미래주의 예술을 퇴폐미술로 규정하고 ㅈ까라 시전함)



Umberto Boccioni - Plastic synthesis - seated person

미래주의 예술가는 언제나 별에 대해 저항하며 미래주의마저 죽임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창설해나가야하는 이들이였지만

미래주의의 아버지라는 마리네티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미래주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반미래주의적이며 추찹하고 반동적'으로 살다가 죽은 미래주의의 애기였다.